

# 발굴경험 근거한 과학적 陶磁史

## 「韓國의 陶磁器」 펴낸 정양모씨

한국미술사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자기미술'은 그 자체가 지니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학과 고고학에 있어 차지하는 사료적 가치로 지금까지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외양'에 갇히는 체계적인 연구작업은 그동안 미진했던 감이 없지 않았다.

30여년간 자기연구에 몰두해온 정양모씨(57,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韓國의 도자기」(문예출판사)는 우선,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나 발굴현황 보고서가 아니라 1960년대부터 1980년대말까지 이뤄진 국내 도자기연구성과를 집성한 방대한 '한국도자기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라말부터 조선조에 이르는 도자기 변천사를 개관한 총론과 고려청자, 조선분청사기, 조선백자에 대한 각론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문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세목 세목은 정양모씨가 60년대 중반부터 발표한 논문 18편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간의 새로운 자료를 보충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표 당시의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논문도 적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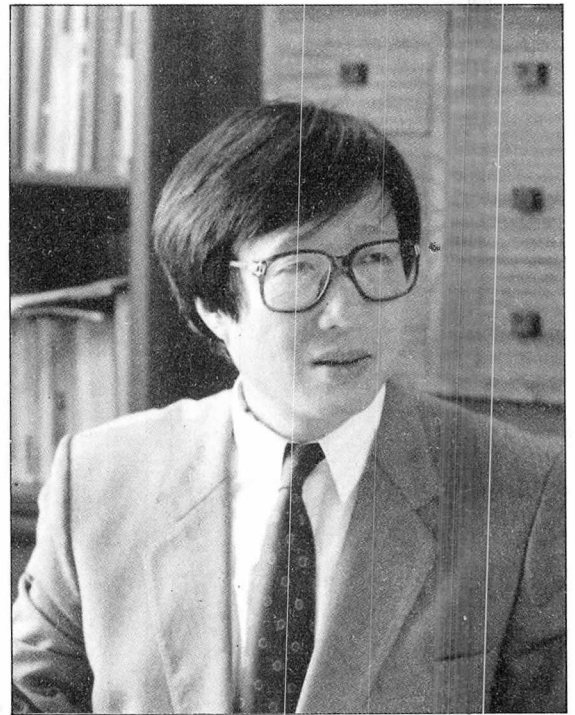
특히 70년대 후반 이전의 청자발생 문제를 다룬 논문들은 전면적인 수정을 가한 부분으로, 정양모씨 자신이 제시한 '청자 신라발생설'을 기초로 우리나라 도자의 역사를 10세기 말~11세기 초에서 9세기로 소급시키고 있다. 1984년 경주박물관장 재직시 안압지에서 출토된 도자기파편이 일제 식민시대 이래로 통설이 돼온 '청자 고려시대 등장설'을 뒤엎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는 그는, 당시 아이러닉

하게도 이 신라청자의 발견사실은 국내 학계에보다는 NHK를 통해 일본에 먼저 알려졌었다고 회고한다.

"1962년 도봉산 조선초기백자 가마터에서 수습된 沙器를 한 짐 지고 내려오면서 자기와 인연을 맺게 된" 그는 바로 그때의 조사작업이 窯址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의 효시가 되었고, 이후 도자기연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혹은 개인에게 소장돼 있는 完形만을 대상으로 하던 '안이한' 방법에서 탈피해 파편이나 가마의 遺構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현장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양모씨 자신의 이제까지의 도자기연구과정은 "가마터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말 그대로 도자기와 가마터의 '파편'을 온전한 실물없이 이어 맞추는 작업은 곧 우리나라 도자사의 줄거리를 잇는 작업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파편들"이다. 그러나 탁월한 수준의 도자기문화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관련연구는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도자기 연구의 근본자료가 되는 가마터와 파편이 '개발'의 미명아래 날로 파괴되고 인멸돼가기 때문이라는 그는, 중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그 긴 노면에 귀중한 파편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었던 일을 일레로 든다. 그만큼 그의 도자기연구는 철저하게 '실물'에 기초한 과학적 규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데, 예의 청자신라발생설을 비롯한 도자사의 시대구분은 물론 가마의 구조, 材質, 문양연구를 통한 자기기술발달사 기술은 나아가 자기에 담긴

신라말부터 조선조에 이르는 도자기 변천사를 개관한 총론과 고려청자, 조선분청사기, 조선백자에 대한 각론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문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세목세목은 30여년간 발표한 그의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실물'에 기초한 과학적 규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양모씨.

당대의 정신사적 의미를 짚어내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독자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발표논문의 수정부분을 미리 밝힌 부분에서도 그의 '원칙주의'를 엿볼 수 있는데, 9세기 통일신라청자로 자기발생의 편년을 수정한 것 외에도 그는 '청자의 자생적 발생설'까지 입증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의 비교연구 결과 통일신라 '靑磁'는 중국 越州系 청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햇무리굽청자'보다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돼 자신의 가설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몇안되는 베테랑 학예관으로 손꼽히고 있는 정양모씨는 爲堂 정인보선생의 자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학자적 '결벽성'을 자신이 아니라 선친의 미덕으로 돌리면서 그는 "오히려 이제는 세속적 가치기준에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다.

출강하는 대학의 박사과정 강의로도 박물관내 연구실에서 해야 할 만큼 바쁜 일정에 동분서주 하는 그의 발걸음이 요즘 부쩍 잦아진 곳은 새로운 유물이 발견된 부천지역이라고 한다.

— 정소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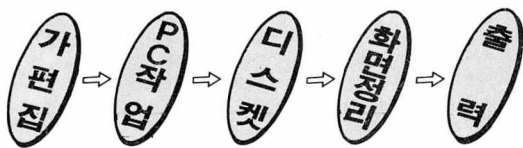
## 출판회소식

###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 등과 서체, 글수 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가능
- 인화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 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 / 카다록 / 박스 / 학위논문 / 식순지 / 사보 및 월간지 / 각종 안내장 / 단행본 및 전집류 / 각종 홍보물제작

